



경영전문대학원 송년의 밤 대성황

“소통과 화합으로 힘차게 도약하자”



경영전문대학원 동창회와 재학생이 함께 마련한 2014년 송년의 밤.



경영전문대학원 동창회 (회장=이춘호)와 재학생 원우회가 함께 주최한 2014년 송년의 밤 행사가 이춘호 회장과 역대 동창회장, 이영면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비롯 역대 경영대학원장 그리고 동문 및 재학생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2일 저녁 엠버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차분하고 내실있게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1부에서 이인배 사무처장의 사회로 박사학위 취득 등 모교를 빛낸 분들에 대한 축하 및 공로패 수여가 있었으며 동창회장 및 경영전문대학원장 그리고 내빈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재학생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제정한 첫 번째 Great DBS Awards 시상식이 있었다. 이상은 전체 교수님들 중 그레이트 멘토 1명에게 수여하는 멘토상과 각 과정에서 선발한 우수 재학원생 6명에 대한 공로상이다. 2014년 그레이트 멘토상 수상교수는 경영전략을 강의하는 이재환 교수님께 돌아갔으며 각 1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이어 도총락 경영사례 경진대회 우수발표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공로패는 박사학위를 받은 이의용 동문을 비롯 △여자동창회 전회장 장신영 △동경산악회 회장 김성래 △동경 라이온스클럽 회장 문양수 △백상 라이온스클럽 회장 강희동 △서초구 재선의원 김안숙 △안양시의원 김필녀 △대통령상 수상 리우식 동문에게 수여되었다.

이어 2부에서는 재학생 박현석 총무의 진행으로 만찬과 함께 백상 응원단과 마술쇼 등 초청 공연과 재학생들의 장기자랑 그리고 경품추첨이 있었다.

학사운영실 정경훈

지 면 안 내

경영대 소식	2면
공모전 대상 수상학생들 인터뷰	3면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생 기고	4면
경영전문대학원 소식	5면
취업준비 Know How!	6~7면
창업학 연계전공 소개	8면
봉사활동 진행한 경영학과 학생회장	9~10면
경영대 생활	11면
경영대 광고	12면

DK글로벌 경영인재 육성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이창규 DK메디컬 솔루션 회장과 이영면 경영대학장 및 이준서 경영학과장 그리고 김진익·홍석표·안영찬 동문 그리고 김정도 경영대 학생회장 및 강인규 경영학과 학생회장 그리고 재학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24일 오후 2시 MBA 202에서 DK글로벌 경영인재 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DK글로벌 경영인재 육성 장학금은 이회장님이 2012년 기부해주신 장학기금 1만 달러와 매년 2천만원을 추가로 보내주시는 기금으로 교환학생 2명을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이다.

달라스에 있는 텍사스 대학에 2명이 다녀왔고 금년에는 유동오·목영진 학생이 선발되었으며 각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학사운영실 지현중



장학증서 수여 후 기념사진 (사진 좌측부터 이준서 경영학과장, 목영진 학생, 이창규 DK메디컬 솔루션 회장, 유동오 학생, 이영면 경영대학장, 강인규 학생회장)

11월 18일 Lotus 조찬 경연회



(좌측)이영면 경영전문대학원장. (우측)성도GL 김상래 회장.

지난 11월 18일, LOTUS 조찬경연회가 열렸다. 성도GL 김상래 회장이 "기업가 정신과 문화경영의 철학"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차가 마지막으로 진행된 제 1기 LOTUS 조찬경연회다.

이번 경연회 강의는 문화의 힘과 사명, 비전, 핵심가치를 통한 문화 경영의 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강연은 충분한 휴식과 문화생활, 그리고 부드러운 조직문화로의

변화를 꾀한 성도 GL의 문화경영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LOTUS 조찬 경연회는 매달 세 번째 주 화요일 아침 07시에 모여서 조찬과 함께 강연을 듣는 행사다. 작년 4월부터 시작하여 11월 18일에 마친 조찬 경연회는 제 2회 조찬경연회에 대한 기대감을 남기며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노창훈 기자

좋은 어플을 소개합니다 'DU배터리 세이버' 어플

이 어플은 배터리 문제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전원 문제 해결사의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도 모르게 실행되고 있는 어플들을 찾아서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종료시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는 것에 효과적이다. 안드로이드 휴대폰뿐만 아니라, 태블릿pc에서도 가동이 된다.

더 나아가서 DU배터리 세이버 어플은 배터리 과다 사용 앱, 간과하기 쉬운 기기 설정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무료로 이 어플이 다운 가능하며

약 50%까지 배터리 소모를 아낄 수 있다.

이 어플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다.

- 빠른 배터리 세이버 : 최적화 버튼을 사용하면 즉시 어플들이 종료된다.
- 전 세계 모든 언어 적용 가능.
- 사용자 맞춤 기능(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편리한 배터리 세이버 : 전원을 많이 소모하는 백그라운드 앱을 한 번의 터치만으로 종료하여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다.

- 정확한 상태 표시 : 안드로이드 앱 및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남아있는 배터리 수명을 확인 할 수 있다.
- 배터리 정보 : 백분율 또는 남은 시간으로 휴대폰의 배터리 전원 수준을 볼 수 있다.
- 배터리 보호 충전 단계 관리자 : 여러 단계로 보호 충전 과정을 추적하고 구현하여 배터리가 최상의 상태로 작동하도록 한다.

한경석 기자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신세계 유통 공모전 대상 수상자와의 인터뷰



(좌측) 경영학과 이주연. (우측) 경영정보학과 최지은.

경영대 학생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본 단어, 공모전. 많은 학생들이 공모전에 참여하고 실제 수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조금 특별하다. 총 10번에 걸친 공모전 도전기, 그리고 결국 신세계 유통 공모전에서 대상을 타는 기쁨을 토한 두 학생, 경영학과 10학번 이주연 양과 경영정보학과 10학번 최지은 양을 만나보았다.

Q. 지금까지 10번의 공모전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처음 공모전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획에 관심이 있어서 공모전을 꾸준히 했었어요. 대부분의 공모전이 기획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어렵지 않게 결정했어요. 이번 공모전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10회 가까이 공모전을 하는데 수상 경력은 한번 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졸업을 앞두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1등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게다가 메이저 공모전이기에 저희들의 도전 욕구는 활활 타올랐죠. 졸업 전에 1등을 한다는 것은 학창생활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떠나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과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아서인지 공모전이 대학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Q. 공모전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유통 관련 공모전이기에 때문에 시장조사를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신세계유통에서 진행되는 공모전이기에 때문에 이마트에

대한 조사를 제일 많이 했어요.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철저한 사전조사가 기반되기 때문이죠.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마트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주제를 이마트에 넣을 상품기획으로 잡고 다시 방문한 거죠.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이마트에 재직 중인 선배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구상안을 조금 더 뚜렷하게 잡아갔어요. 이후에 여준상 교수님, 전승우 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멘토분들께 조언을 구했어요.

Q.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준비 기간이 6월부터 9월까지 네 달간이었던 것도 힘들었어요. 예선 통과 후 본선에 진출할 때 같은 내용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이 너무 길고 확신이 부족해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또 유통 과정에 대한 전문 강의를 많이 듣지 못해서 자신이 없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채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추가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죠.

Q. 이번 공모전 대상이 본인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의 목적에 매달려 꾸준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 성취감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상품기획 쪽에 근무를 하고 싶었는데 진로에 대한 자

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그리고 이 공모전 이전까지 수상 경력이 거의 없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기분이었었는데 이번 대상이 그 동안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몹시 뿌듯했어요.

Q. 공모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일단 배우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 대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장 조사를 부지런히 해도 시장을 보는 시야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현업에 계신 멘토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배움을 얻으며 시야를 넓히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수정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교수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탐구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디자인이 아닌 상품 기획을 할 수 있는 공모전 이어서 실제 재료를 사서 포장을 하고 라벨 붙이고 사진을 찍어서 프로토타이핑까지 완료했어요.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같아요.

Q. 학교 측에서 제공해줬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공모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예요. 능금, 비즈마루, 세미나실은 있지만 공간 대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공모전뿐만 아니라 학교를 4년 동안 다니면서 생각해본 결과 편의시설이 확충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비어있는 강의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면 더 좋구요.

공모전을 하는 족족 상을 휩쓰는 전설같은 팀이 있다. 타 학교의 어떤 친구는 공모전 수상경력이 26번이나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취직하기도 했다. 이주연, 최지은 교우는 바닥부터 정상까지 열심히 근면하게 달려와서 대상을 쟁취했다. 요행을 바라지도 않았고 7전 8기가 아닌 9전 10기의 근면성실함과 끈기를 보여줬다. 본인들의 능력이 특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두 교우. 그들이 대상을 수상한 힘은 끈기와 노력이고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 꽃이 피었다는 생각을 한다.

노창훈 기자

8기 원우회, 졸업생 대상으로 취업 및 벤치마킹 주선



8기 강봉석 회장의 주선으로 취업한 학생들과 찍은 사진

8기 원우회를 이끌고 있는 강봉석 회장이 동국대 졸업생 포함 5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강 회장은 글로벌 CEO과정에 재학중인 김해룡 원생이 운영하는 (주)ATEX에 지난 11월 학사운영실의 추천을 받아 동국대 졸업생을 비롯하여 타 대학 재학생 총 5명을 취업시키는데 기여했다. 강 회장이 직접 졸업생과 기업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한 것이다. (주)ATEX(대표 김해룡)는 리더십 MBA 과정에 재학 중인 대경정보산업고 교사인 김범년 원생의 학교 졸업예정 학생 3명을 취업시킨 바 있다.

강 회장은 또 지난 12월 1일과 4일에 각각 취업면접과 창업 관련 벤치마킹을 주선하기도 했다.

김기섭 기자

〈기고〉 졸업을 앞두고

‘나’를 찾아준 MBA, 멋진 비상 꿈꾼다



지난 12월 2일 송년의 밤 행사에서 진행을 맡은 정재원 원생(사진 가운데)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곧바로 결혼을 했고 세 아이를 낳고 보냈던 10년.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인생에서 나는 무언가 새로운 곳을 찾았고 결국 동국대 MBA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2년 전, 처음으로 학교를 간 날엔 설레임과 기대감에 한껏 부풀 내 마음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무언가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었던 터라 사람들과의 만남과 배움에 대한 열정,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었다.

강의실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노라면

아내, 엄마, 며느리가 아닌 잊고 있었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자 시간이었다. 숨을 쉴 수가 있었고 자아를 찾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얻었고 그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했다.

간절히 원했던 나만의 시간이었으므로, 학교에 와 있는 동안에는 피곤이 몰려와도 아이들의 육아를 뒤로 한 채 온 것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수업 따라가기 바빴지만 졸업을 앞두고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도 생긴다. 사회경험이 하나도 없던 나였지만 다른 원우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실무에 충실한 강의를 여러 차례 들으며, 이제는 사회에 나갈 준비도 갖춘 것 같다.

나를 찾게 해준 동국대 MBA, 그곳에 가면 반겨주던 원우들, 나를 알아봐 주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나를 짓누르던 과제조차도 마냥 좋기만 하다.

그런데 학교생활을 막 즐기려고 하니 벌써 졸업이다. 이제 졸업을 하면 늘 학교 가던 시간에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내가 어색하기만 할 것 같다. 하루하루 종강이 다가오면서, 슬프기도 하고 시간을 되돌려 우리 원우들을 붙잡고 싶지만 서로의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하지만 서운하고 슬픈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학교가 아닌 세상에 나가서 움츠렸던 날개를 펴고 우리 원우들의 응원에 힘입어 멋진 비상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만들었던 구호, 동국 MBA, 날개를 펼쳐라!!!!!!!!!!!!!!

모두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원(MBA 7기, 리더십 전공)

제2회 도총락 사례경진대회, 6개 팀 참가 열띤 경합 벌여



도총락 경영사례 경진대회 마친 후 기념 사진.

지난 11월 25일(화) 오후 7시 MBA CEO룸에서 제2회 도총락 사례경진대회가 열렸다. 총 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세 시간 가까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번 대회는 개인 출전자 2팀, 팀 출전자 4팀이었고 발표주제도 스마트제품에서

부터 한국의 제약 산업 해외 진출전략까지 다양했다.

한편 이 대회 시상식은 지난 12월 2일(화) 경영전문대학원 송년의 밤 행사 때 진행되었다.

한 팀에게만 주어지는 최우수상은 팜 MBA 과정에서 출전한 김동진, 전유원,

윤성재, 서경원 팀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두팀으로 안지영, 최유정, 강한성 원생팀과 김창진, 최우석, 김웅갑 원생팀에게 돌아갔다. 상금은 최우수상과 우수상팀이 각각 150만원, 100만원이고, 세팀의 입상팀에게는 각각 50만원이 주어졌다.

김기섭 기자

No	참 가 팀	과 정	주 제	결 과
1	김동진 전유원 윤성재 서경원	Pharm	제약산업 이머징 마켓 진출 전략	최우수
2	안지영 최유정 강한성	Entrepreneurship	아모제푸드 HMR 신규프랜차이즈 제안	우수
3	김창진 최우석 김웅갑	Executive	한국형 SIB 도입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	우수
4	윤정오 이양훈	General	침체된 선풍기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제안 보고서	입상
5	이상윤	Entrepreneurship	쏘카 기업분석 및 New business model	입상
6	이정석	Entrepreneurship	IOT기반의 스마트스쿨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제안	입상

DBS Culture Day, 신년회 겸해 개최

2015 DBS CULTURE DAY

● 일 정 : 2015년 1월 10일 토요일 / 오전 09:30~15:00

● 장 소 : 오전 09:30분 CGV 명동역점 11층 6관 집결

● 대 상 : 2015 MBA 재학생 (7기 후기, 8기, 9기 신입생, 수상자 가족)

● 동 선 : CGV 명동역점 → 동국대 상록원(서틀버스 운행)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09:30 ~ 09:50	기념품 및 간식 지급	영화관 앞 데스크
09:50 ~ 10:10	경영전문대학원장님 신년사	
10:10 ~ 10:30	원우회 집행부 공로상 시상	
10:40 ~ 13:30	영화 '국제시장' 관람	
13:40 ~ 14:00	서틀버스로 학교 이동	명동 → 동국대
14:00 ~ 15:00	상록원 점심식사 및 행사종료	떡국 준비 예정

새해 1월 10일(토) MBA 재학생의 신년회를 겸하여 DBS Culture Day 행사가 CGV 명동역점에서 펼쳐졌다. 대상은 MBA 재학생을 비롯하여, 이번엔 입학하는 9기 신입생, 수상자 가족이다.

행사는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여 원장님 신년사, 공로상 시상식에 이어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다. 이어 서틀버스로 학교로 이동하여 상록원에서 점심으로 떡국을 먹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 이벤트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 참가 원생에게는 무선 LED 스탠드 선물로 제공되었다. 김기섭 기자

본 기사에서는 2014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한 선배님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취업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한다. 인터뷰에 도움을 준 동문은 김기범(회계학과, 07학번), 오신혜(경영학과, 09학번), 조재상(경영학과, 08학번)이다.

김도원 기자, 이미소 기자



김기범 (회계학과, 07학번)
BGF리테일 재경지원 입사

● 자기소개서 준비

저는 자기소개서 첨삭을 많이 받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도만 타인에게 확인 받았습니다. 우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자기만의 OWN WORD가 요구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재무란 무엇인지, 유통이란 무엇인지 그 직무에 대한 자신만의 특별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직무를 이해했다면 저의 경험과 연관지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3학년 때 친구와 함께 동서몰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한 경험으로, 사업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것을 재무적인 관점에서 자기소개서에 적었습니다.

더불어 제가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항상 ‘WHY?’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스펙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랑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감은 필수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다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가 이 회사에 왜 지원하고 이 직무를 지원하는지, 나를 왜 뽑아야 하며 내가 이 직무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어필해서 담당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한 기업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한은행 서류전형에 합격했을 때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의 인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객응대,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 면접 준비

면접은 서류 전형이 통과한 다음 준비했습니다. 저는 토론면접과 PT면접을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두 면접은 준비가 미흡하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이 두 면접은 미리미리 꼭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필수로 나올 질문과 난감한 질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단골 질문 중에 왜 회계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CPA를 준비 안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객관적 증거(쇼핑몰, 자격증, 해외봉사)를 토대로 설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CPA를 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면접 시에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설득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익 점수가 왜 낮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한 단점을 상쇄시킬만한 어떤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취업을 준비할 때 자신감은 필수입니다. 자기소개서부터 계속 떨어지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답답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익숙해지진 마세요.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 나약해집니다. 언제가 되었던 자신이 스스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취업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원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최대한 고민하고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객관화 해 보자”

● 자기소개서 준비

초반에는 저의 이야기를 쓰기 바빴습니다. 내가 뭘 했고 어떤 성과를 냈으며, 이런저런 많은 일을 했다는 말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많이 실패

하다보니,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기업이 원하는 이야기를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실수하고 간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회사에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위주로 작성하고 최대한 많은 선배들에게 검토 받으려고 했습니다.

▶ 7면으로 이어집니다.



조재상(경영학과, 08학번)
KPF사(케이피에프) 재무부서

“경험 적다고 걱정하지 말자! 지원 직무 이해와 관련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

● 자기소개서 준비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처음으로 제가 한 것은, 제 경험을 꼭 나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서 지원한 직무에 맞게 다양한 스토리를 끌어내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인턴 경험(투자회사)을 두고, 영업 직무 관련 자기소개서에는 낯선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작성하였고, 기업 재무 관련 자기소개서에는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 법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지원자에게 대단한 경험들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경험이 적다고 하여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관련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돈을 잘 갖지 않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어떻게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만으로 영업이나 인사 등 사람을 다루는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험이라면 훨씬 좋겠습니다만, 스토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단한 이벤트를 생각해내기보다 자신의 일상생활을 직무와 관련시켜 작성하여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면접 준비

면접은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나서부터 준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면접 자세에 대하여 공부한 적은 없고 서류에 합격한 회사에 한해 그 회사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분야가 재무 분야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공시 재무제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재무 관련된 자료들을 먼저 공부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등 기본질문들은 여러 번 연습하여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파로 취업스터디를 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을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이 저에게 질문해주는 방법으로 연습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 당일입니다. 그 때 자신감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는 면접관님보다 더 많이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잘 모른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면접관들이 보는 것은 긴장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는지 같습니다. 저 역시도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여 말을 더듬기도 하였으나, 모르겠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며 꽤 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서 잘 넘어가려 노력했습니다.

● 그 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최근 취업이 힘들다 하며 오랜 기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너무 눈이 높아 대기업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튼실한 중견 및 강소기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취업 시에 그런 회사들에도 관심을 갖고 많이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6면에서 이어집니다.

한편 학생들 중 스토리가 없어 고민하는 후배들이 많은데, 동아리, 소모임, 수업시간 내 팀프로젝트 경험 등 꼼꼼이 생각하다보면 본인이 겪었던 경험들은 다양합니다. 꼭 성대하고 대단한 경험만이 스토리가 아닙니다.

저는 팀 프로젝트 시에 기업 인터뷰를 따는 과정까지 자기소개서에 쓰곤 하였습니다. 어떤 경험이 되었든 자신이 배우고 느낀 것이 있다면 다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면접 준비

저는 서류가 거의 붙지 않아서 면접 준비를 미리 하진 않았습니다. 서류 합격 후 독취사와 같은 카페에서 합격자들을 모아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제가 입사한 풀무원같은 경우는 1차 면접이 인적성, 토론면접, 실무면접이었기 때문에 토론면접과 실무면접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토론면접은 스터디원이 2~3개의 주제를 준비해오고 당일 복불복으로 주제를 정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실무면접도 이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실제와 비슷하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무작정 취업을 준비하기보다는, 무엇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등 자기성찰 시간을 꼭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원하는 직무에 들어가서도 이 길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은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때 최대한 많이 고민해보고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객관화 해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혜
(경영학과, 09학번)
풀무원 마케팅부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청년CEO를 양성하는 창업학 연계전공

현업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한 질 높은 교육과 풍부한 지원금 등 우수한 시스템

지난 몇 년 사이 소규모 창업 및 스타트업이 부쩍 늘어났다.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공을 꿈꿀 수 있는 시대가 되자 창업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며 취업보다 창업 쪽으로 눈을 돌리는 대학생이 늘어난 데 이어 정부 역시 청년창업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창업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연계전공으로 ‘창업학’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업학은 경영학 및 경제학의 후발 영역으로 국내에서는 해당 분야가 생긴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분야이다. 이러한 창업학의 확립을 선도해온 우리 대학의 창업학 연계전공은 다학제적 지식과 실무융합 역량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전공과정에는 경영, 경제, 법, 회계, 공

학이 공존하여 창업단계의 전주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해당 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창업학 연계전공 학위를 부여한다. 특히 우리 대학은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로 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내 창업관련기구들을 통합하여 운영 중이다. 이 덕분에 교육 과정 내에 현업 종사자인 전문가의 지도 프로그램 및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초빙 등 외부와의 연계가 잘 되어 있다. 창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문한 사람부터 초기 창업자, 재창업자 등이 갖는 다양한 요구를 무리 없이 충족시키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공학도임에도 경영학과 연계된 전공과목을 들으며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감각을 키워가고 있는 김광훈(산업공학 08) 학생은 창업학 연계전공이 갖는 특별한 이점으로 ‘창업주로서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갖추 수 있는 점’을 꼽았다. 그리고 몇 년의 시행착오 끝에 뛰어난 체계를 갖추게 된

우리대학의 창업 교육시스템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현업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풍부한 지원금 덕에 대부분의 창업자가 고민하는 자본 및 인적자원에 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점을 꼽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창업학에서 배우는 실무 지식 및 다양한 학문에 대해 매우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해당 학문들을 실제 창업과 연계시키는 것은 창업학 연계전공자 개인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단순히 여러 학과의 학문을 일회성으로 학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타 학문을 본인의 창업 아이템과 접목시켜보거나 다학제 차원에서 달라지는 창업의 결과물을 고민하는 등 본인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창업학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

윤정희 기자

영어와 전문능력을 동시에 검증받자! 무역영어

국제 비즈니스 임무를 처리하는데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돼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발표에 따르면, 이른바 3대 취업 자격증으로 불리는 컴퓨터 활용능력, 한자 자격 평가 시험 그리고 무역영어의 2014년 응시인원이 67만 8000명으로 전년보다 12.1%나 늘었다. 이는 점차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채용 기준에 의한 취업 준비생들의 응시율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3대 취업 자격증 중 대외교역이 확대되고 국경이 점차 사라지면서 무역 영어에 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자유무역협정 확대, 글로벌 경제시대가 다가오면서 수입이나 수출 실무 비즈니스 회화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무역에 관한 영어 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다면 더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역영어 검정시험은 무역관련 영문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이다.

무역영어는 민간자격증인 국제무역사와 함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자격증이다. 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며 1,2,3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급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1급과 3급은 시험 시간이 같기 때문에 응시자는 2급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실제 시험의 난이도는 1급이 다소 어려우나 2급과 큰 차이가 크지 않다. 해당 시험은 100점 만점이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러나 1급은 한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이다. 시험 응시료는

2만 4200원이다.

무역영어는 과거에 무역학과를 졸업한 학생이면 쉽게 합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즉 기본적인 영어 독해 능력과 작문능력을 바탕으로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한 시험이다.

시험과목은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과목당 25문항씩 출제되어 객관식 75문항이고 시험 시간은 90분 동안 진행된다. 1과목 영문해석과 2과목 영작문 파트는 무역거래 상황이 영어로 주어지기 때문에 무역 지식과 독해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시험은 문제 은행식으로 반복되므로 얼마나 연습했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 9면으로 이어집니다.

“경영학과 모두가 함께 하는 봉사 꿈꿔”

중학생 멘토링 봉사활동 진행한 강인규 경영학과 학생회장 인터뷰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 관한 퀴즈가 끝난 후 문화상품권 전달 및 기념 촬영.

지난 해 10월 말, 경영학과 학생회는 중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소외계층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보통 학내 활동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학생회에서 학교 외부로 활동범위를 넓힌 것도 이례적인데, 학생회가 직접 진행한 행사의 수익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취임 전부터 경영학과 학생들과 함께 하는 봉사를 꿈꿔왔다는 강인규 경영학회장을 만나 이번 활동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Q.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다.

경영학회장이 되기 이전부터 학생들과 함께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떤 형태로라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계획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지난 9월 대동제 때 경영학과에서 운영했던 주점이 최초로 200만원이라는 거금의 흑자를 내게 됐다. 경영학회 학생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고 난 뒤에도 예산이 남아, 전부터 예산부족으로 계획에만 머물렀던 봉사활동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돈을 보다 의미 있게 쓰고 싶어 회의

도 하며 많은 의견을 나눠봤는데, 단순히 돈으로 단체에 기부하는 형식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중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다.

Q.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왔는지 자세히 듣고 싶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이기에 자칫 진부해질 수 있었지만, 우리 대학생들이 그 아이들과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했다. 꿈과 미래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

▶ 8면에서 이어집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토익 파트7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운 수준이다.

3과목 무역 실무 파트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만 출제 된다. 무역 실무는 특정 범위가 아닌 전반적인 무역 업무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우수한 영어 성적으로 1,2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고도 3과목에서는 과락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무역실무는 무역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제 무역사나 다른 무역 자격증을 함께 병

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무역영어는 다양한 인터넷 강의가 있기 때문에 독학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무역관련 전공자의 경우 기본적인 영어능력이 뒷받침 된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시험 준비생들은 교재의 이로부터 순서대로 정리하고 시험이 문제은행 형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출문제로 꼼꼼히 본인의 실력을 점검하고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당 자격증을 국제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하는데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대기업의 무역실무 관리, 관세사, 무역회사, 한국 무역협회, 무역종합상사와 더불어 금융기관에서도 취업 시 가산점이 인정되며 해당 분야에 취업 하는 경우가 많다.

무역영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대한상공회의소 웹사이트 (<http://license.korcham.net/index.jsp>) 에서 볼 수 있다.

김은영 기자



중구 청소년수련관 학생들과 함께한 뜻 깊고 소중한 시간.

지를 알려주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며 동국대학교와 경영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또 평소 자습서 및 도서 구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 대한 퀴즈 및 일대일 멘토링을 가장 원활하게 수행한 그룹에게 문화상품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저녁으로 피자과 치킨을 사서 아이들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Q. 다양한 장소 중에서 중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봉사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동국대와 가까운 위치에 있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기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동국대와 중구 청소년 수련관 사이에는 이전에도 소규모의 형태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교환도 쉽고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

Q. 봉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기관과 우리 측에서 서로 원하는 점이 일치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거의 없었다. 기관에서는 평소 멘토링 강사를 따로 초빙해 와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차라, 우리가 봉사 차원으로 직접 멘토링을 진행하겠다는 하니 반갑게 맞아주셨다. 또한 멘토링에서도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나 행복에 관련된 내용을 다뤘

기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일대일로 고민을 상담해주는 시간도 마련했는데, 우리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다보니 어렵지 않게 아이들을 이해하고 멘토링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부담이나 어려움은 전혀 없이 즐겁게 봉사를 마쳤다.

Q. 봉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

사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소외계층 아이들이라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그런 선입견을 깰 수 있었다. 모두 비슷한 고민과 소망을 가진 평범한 아이들이었고, 멘토로 간 우리와도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평범한 학생일 뿐인데, 그런 우리의 도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준 점이 정말 고맷다.

Q. 봉사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이번 활동을 하면서 더욱 크게 느낀 것인데, 봉사활동을 다 하고나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봉사는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봉사 점수를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은 참된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얻을지 계산하지 않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한다.

Q. 이번 활동과 관련해 앞으로 경영학회가 실천하려는 계획은?

이번 임기가 종강 전까지이기 때문에 경영학회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라든지 학회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를 한다든지 하여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일단 이번에 있던 멘토링 봉사활동을 일회성 봉사가 아닌 정기적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차기 학생회장과 함께 계획 중이다. 앞으로 동국대학교 탐방 등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중구 청소년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영학과 학생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Q. 마지막으로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처음 진행해보는 일이라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봉사를 통해 내 주변을 넘어 우리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웠다.

앞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할 텐데, 꼭 학생회가 아니더라도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소속 학회에 상관없이 지원해줬으면 한다. 또 경영학과와 다른 학생들도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윤정희 기자, 최호정 기자

전자담배는 실내에서 문제가 없다?



여러 유해성을 함유하고 있는 전자 담배.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없다’는 유언비어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정부의 담배 값 인상이 거론된 후 연초담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싼 가격이 입소문을 타면서 흡연자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내에서도 나타났다. 전자담배의 유행은 새로운 패션 아이템처럼 전자 담배를 목에 걸고 다니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증명한다.

그러나 교내의 전자담배 흡연자가 증가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일부 흡연자부터 비흡연자들의 불편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경영대에 재학 중인 경영학과 3학년 박 모 학생은 “금연팻말이 붙은 곳에서 흡연하는 모습도 보기 좋지 않은데, 이제는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 전자 담배라며 아무렇지 않게 복도와 교실에서 흡연하는데, 주변의 친구들 모두 너무 황당해했다.” 라고 전했다. 또한 흡연자 회계학과 김 모 학생은 “나도 흡연자이지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담배도 담배인데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흡연하는 게 매우 불쾌하다”라고 전했다.

전자담배 흡연자와 더불어 비흡연자들도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담배 사업법 제 2조에 따라 엄연히 담배로 규정됐다. 따라서 100㎡이상 영업장과 도심공원 및 교육시설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엄연한 불법이다.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 전자담배는 발암물질, 인체 유해 물질이 없다?

있다. 전자담배는 액상의 화학물질을 기화 시킨 수증기를 호흡하는 방식으로 액상에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을 직접 넣을 수 있다. 즉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니코틴 함유량을 기존의 연초 담배보다 20배 이상 높게 사용하거나 소량으로 조절 할 수 있다.

▲ 전자 담배에서 니코틴을 빼거나 연기가 보이지 않으면 피해가 없다?

아니다.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더라도 유해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자담배가 화학물질을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발생하는 각종 발암 물질, 환경 호르몬 등이 건강에 해롭다.

▲ 전자 담배는 금연 효과성이 입증됐다?

아니다. WHO에서는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전자담배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담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금연으로 볼 수 없으며 중단하면 다시 일반 담배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사회와 교내에 새롭게 나타난 전자담배에 관하여 흡연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 대학에서도 전자담배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올바른 흡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교내 구성원들 간의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영 기자

경영대 Fashionista

오제연
(회계 11)



코트
빈티지 6만원
맨투맨
NUHABIT 3만원
바지
모디파이드 5만원
신발
쏘로곳 18만원

경영대학 패셔니스타 그 6번째 모델 오제연 군은 대학생답게 화려하지 않은 깔끔하고 편안한 스타일을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자칫 무채색의 코트가 심심할 수 있는데 깃에 파란색과 초록색의 체크무늬가 심심함을 덜어준 것 같습니다. 또 원래 상의는 크게 입고, 하의는 타이트하게 입는 것을 추구해서 코트를 제정사이즈보다 크게 입었어요. 코트 안에는 일상생활에 정말 편한 맨투맨을 입었고, 하의는 타이트한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신발은 무난한 갈색 워커로 선택했어요.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저렴한 아이템으로도 깔끔하고 편안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김도원 기자



자부심 위의 자부심 Dongguk MBA

텍사스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Global
MBA**
(full-time)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Executive
MBA**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추구하는 국내 최초

**Entrepreneurship
MBA**

경영학을 바탕으로 제약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최초

**Pharm
MBA**

사회 각 분야의
최고 리더를 양성하는

**Leadership
MBA**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복수학위·교환학생 프로그램
(GMAT면제, in-state tuition 등 특별 혜택 제공)

중국 Sun Yat-sen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전 강좌 영어수업)



2012년 AACSB인증 획득
AACSB는 경영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인증기관으로
Business School이 갖추어야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상식을 거쳐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5 전기 신입·편입생모집

- 원서 접수 2014년 12월 15일(월) ~ 2015년 1월 13일(화)
- 면 접 일 2015년 1월 17일(토) 오전 10:00
- 입시설명회 2015년 1월 8일(목) 오후 7시 MBA 201
- 02-2260-8884~5 / mba.dongguk.edu

